

||| Keri |||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2년 9월

전망과 정책과제

제1장	국내경제동향	5
제2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33
제3장	국내경제전망	43
제4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53

부록

주요경제통계	60
--------------	----

편집위원

선임연구위원

허찬국

이인실

연구위원

배상근

선임연구위원

김창배

서준석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제1장 국내경제동향

1. 실물부문
2. 대외거래부문
3. 물가부문
4. 통화·금융부문

제2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1. 성장
2. 원자재가격
3. 국제 금리·환율

제3장 2002년 하반기 및 2003년 경제전망

1. 실물부문
2. 물가부문
3. 대외거래부문
4. 금융부문

제4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1. 최근 경제현황에 대한 인식
2. 향후 경제정책방향

제 1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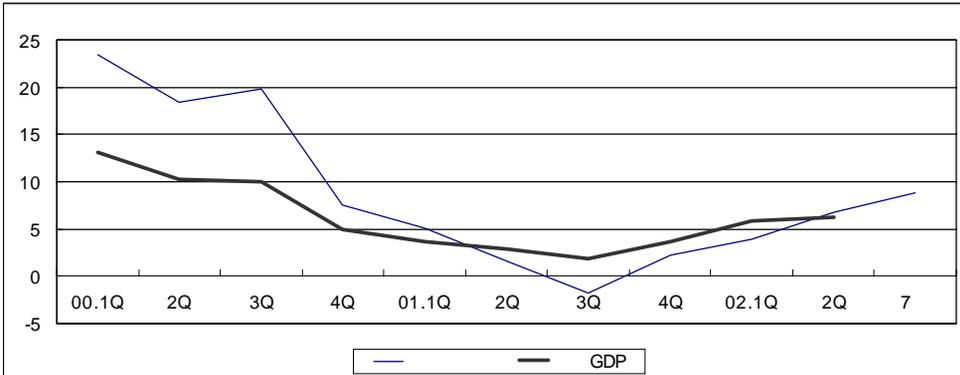
국내경제동향

1. 실물부문

내수부문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확대되면서 경기회복국면 지속

- 2002년 2/4분기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동기비 6.3% 증가하면서 1/4분기(5.8%)보다 증가세 확대
 - 실질GDP : 2001년 3Q 1.9% ⇒ 4Q 3.7% ⇒ 2002년 1Q 5.8% ⇒ 2Q 6.3%
- 산업생산지수도 2/4분기중 전년동기비 6.8% 증가한데 이어 7월중에도 8.9% 증가하면서 증가세 확대
 - 산업생산 : 2001년 4Q 2.3% ⇒ 2002년 1Q 3.9% ⇒ 2Q 6.8% ⇒ 7월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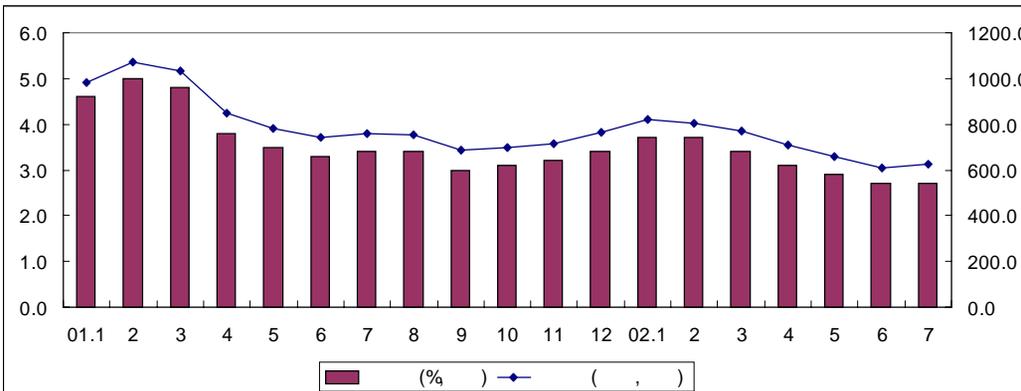
<그림 1> 실질 GDP와 산업생산 추이



■ 경기회복세의 지속으로 고용사정이 개선되면서 실업률과 실업자수 하락

- 실업률(%) : 2002년 1월 3.7 ⇒ 3월 3.4 ⇒ 5월 2.9 ⇒ 7월 2.7
- 실업자(천명) : 2002년 1월 819 ⇒ 3월 769 ⇒ 5월 661 ⇒ 7월 626

<그림 2> 실업률 및 실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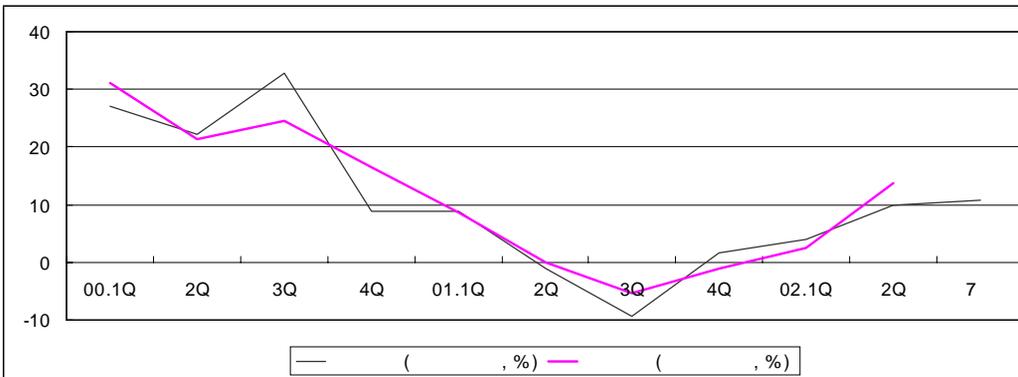


■ 2/4분기 이후 소비, 건설 등 내수부문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세가 지속된

은 수출증가세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기 때문

- 2002년 2/4분기중 재화의 수출이 전년동기비 13.7% 증가하면서 1/4분기(2.5%)에
해 증가세가 대폭 확대
- 수출출하도 2/4분기중 전년동기비 10.0% 증가한 데 이어 7월중에도 10.8% 증가

<그림 3> 수출물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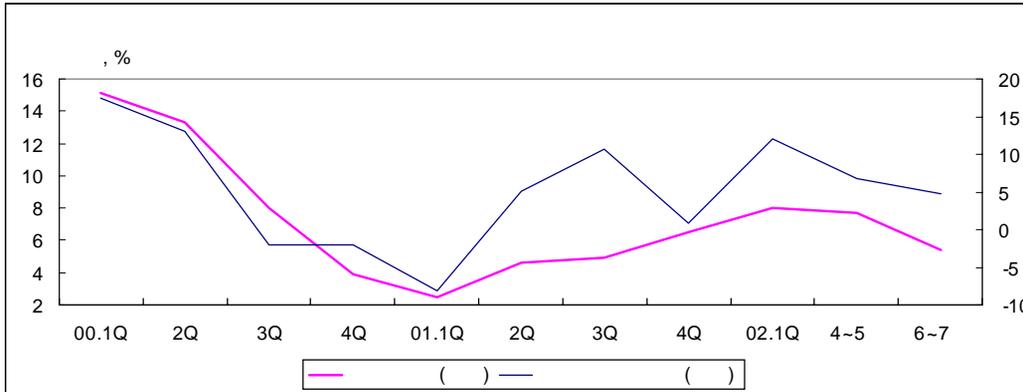


소비 : 2/4분기 이후 증가세 둔화

■ 소비 : 2/4분기부터 증가세 둔화

- 민간소비(국민계정) : 2001년 4Q 6.6% ⇒ 2002년 1Q 8.4% ⇒ 2Q 7.7%
 - 도소매판매* : 2002년 1Q 8.0% ⇒ 4~5월 7.7% ⇒ 6~7월 5.4%
 - 내수용소비재출하* : 2002년 1Q 12.0% ⇒ 4~5월 6.7% ⇒ 6~7월 4.7%
- * 4~5월과 6~7월로 구분한 것은 6월중 월드컵효과를 감안하기 위한 것임.

<그림 4> 소비관련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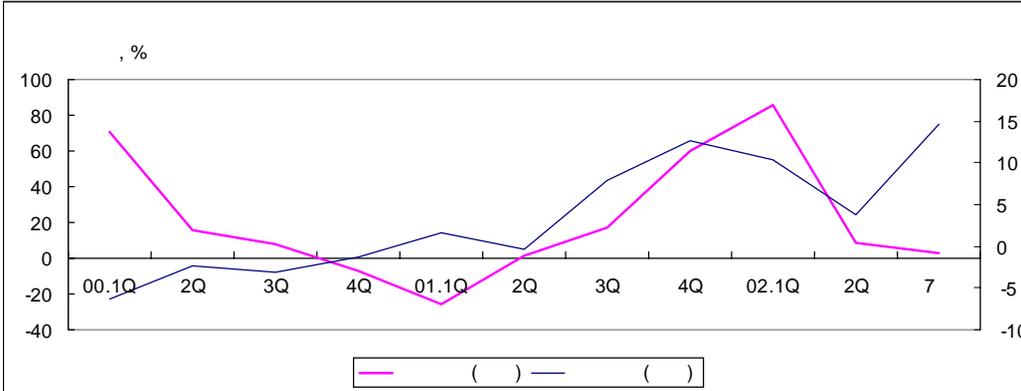


투자 : 건설투자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설비투자 회복세는 미약

■ 건설투자 : 증가세 둔화

- 건설기성 : 2001년 4Q 12.8% ⇒ 2002년 1Q 10.3% ⇒ 2Q 3.8% ⇒ 7월 14.6%*
* 지난해 같은 기간의 큰 폭 감소(-8.3%)에 따른 기술적 반등효과
- 건설수주 : 2001년 4Q 60.1% ⇒ 2002년 1Q 85.6% ⇒ 2Q 8.8% ⇒ 7월 2.6%

<그림 5> 건설관련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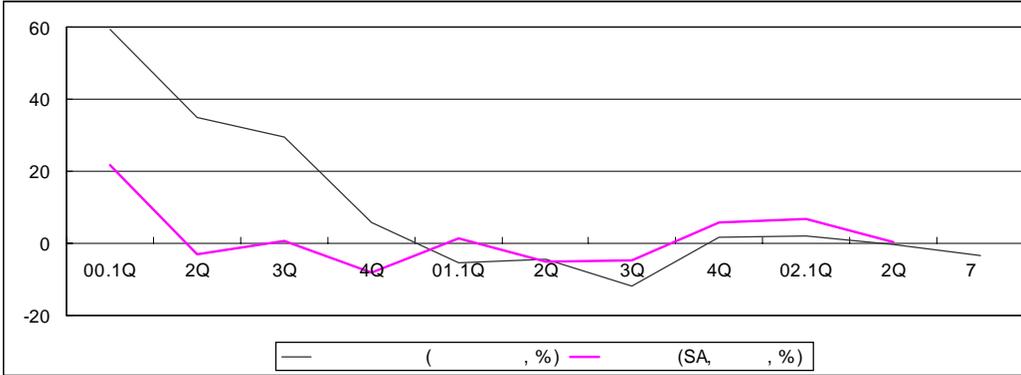


- 2/4분기중 설비투자는 통계작성기관에 따라 상반된 모습을 보여 주었음.
 - 설비투자(한국은행)의 증가세 확대 : 2002년 1Q 3.2% ⇒ 2Q 7.4%
 - 설비투자추계(통계청), 감소세로 반전 : 2002년 1Q 2.2% ⇒ 2Q -0.2%

- 이는 두 기관의 통계조사 방법상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작년 2/4분기중의 증가율이 금년 2/4분기에 반영되는 착시적 현상으로 보임.
 - 설비투자(한국은행) : 2001년 2Q -11.2% ⇒ 2002년 2Q 7.4%
 - 설비투자추계(통계청) : 2001년 2Q -4.3% ⇒ 2002년 2Q -0.2%
 - 차이(=설비투자증가율 - 설비투자추계 증가율) : 2001년 2Q -6.9%p ⇒ 2002년 2Q 7.6%p

- 그러나 2/4분기 설비투자(한국은행)의 계절조정 전분기증가율이 0.2%에 그쳐 1/4분기(6.9%)보다 크게 하락한 점, 그리고 7월 설비투자추계(통계청)가 여전히 감소해 있는 점으로 보아 설비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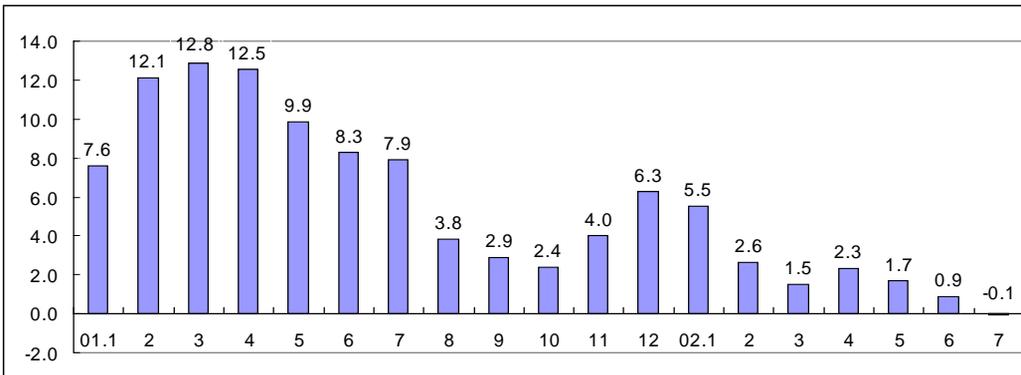
<그림 6> 설비투자율과 설비투자추계



- 설비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제조업생산능력지수*가 지난해 3월 이후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7월에는 전월동월대비 0.1% 감소

* 제조업생산능력지수 : 사업체의 주어진 조건(설비, 노동력, 사내지정조업시간 및 수 설비효율 등)하에서 정상 가동시 최대 생산량

<그림 7> 제조업 생산능력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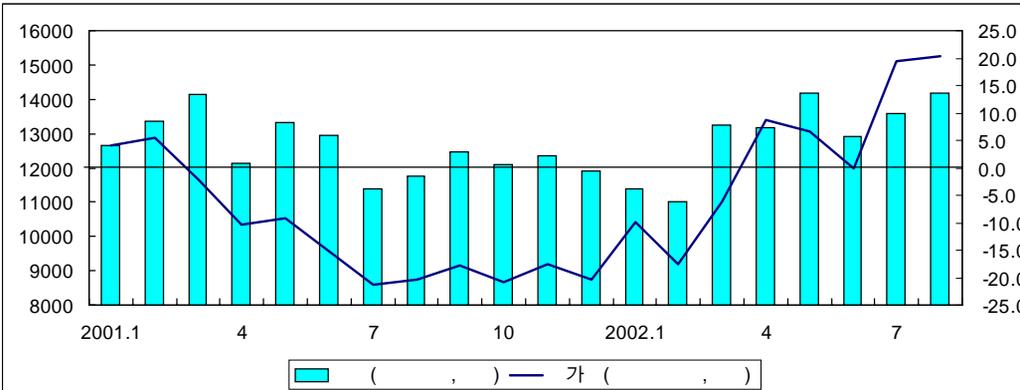


2. 대외거래부문

수출 : 2/4분기 증가세로 반전된 이후 7~8월중에는 두 자리수의 높은 증가세

- 수출은 2/4분기 증가세로 반전된 이후 7~8월중에는 두 자리수의 높은 증가세
 - 7~8월중 수출은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목의 완만한 가격상승세* 지난해 같은 기간의 큰 폭 감소(-20.8%)에 따른 기술적 반등효과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19.9% 증가
 - * 반도체(128M, 현물, \$/개) : (01.7) 2.06, (8) 1.59 → (02.7) 2.64, (8) 2.11
 자동차(평균, \$/대) : (01상) 7,972 → (하) 8,392 → (02.상) 8,813
 석유화학(평균, \$/톤) : (01.7) 673, (8) 679 → (02.7) 711, (8) 770

<그림 8> 수출금액과 증가율 추이



- 품목별로는

전망과 정책과제

- 무선통신기기의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급감했던 컴퓨터와 반도체의 출이 크게 호전
- 석유화학, 일반기계, 선박 등의 수출도 2/4분기 이후 증가세 확대
- 철강제품과 섬유류도 7월 이후 증가세로 반전
- 석유제품은 원유수입량 감소 및 채산성악화 등의 영향으로 여전히 부진

<표 1> 품목별 수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2001년			2002년				
	7월	8월	연간	1/4	2/4	7월	8.1~20	1.1~8.2
자동차	-10.2	3.8	0.8	10.1	-4.4	8.7	19.5	4.0
무선통신기기	17.4	42.1	25.0	32.1	42.8	44.9	21.8	37.1
가 전	-5.6	-13.2	-4.4	1.4	14.9	12.4	10.1	8.5
컴퓨터	-32.0	-34.1	-23.5	0.7	39.4	36.2	26.2	17.4
반도체	-63.9	-65.5	-45.2	-23.6	9.7	61.2	79.5	1.3
석유화학	-13.8	-15.4	-13.2	-9.0	6.0	21.0	24.7	2.9
일반기계	-14.1	-5.3	-0.8	-15.9	4.0	24.5	20.9	-1.1
선 박	26.8	1.7	17.7	-27.2	7.4	-4.6	75.5	-7.8
철 강	-14.4	-13.9	-11.9	-18.7	-2.2	10.6	35.8	-5.9
석유제품	-19.6	-23.7	-13.9	-43.6	-25.5	-3.8	-14.8	-29.5
섬유류	-18.0	-15.3	-14.5	-15.0	-4.7	6.4	7.7	-6.2

■ 지역별 수출동향

- 대중국 수출이 2/4분기 18.4% 증가한 데 이어 7~8월중 30%대의 높은 증가세
- 그외 미국, EU, 일본, 아세안지역에 대한 수출도 빠른 회복세를 보임.

<표 2> 지역별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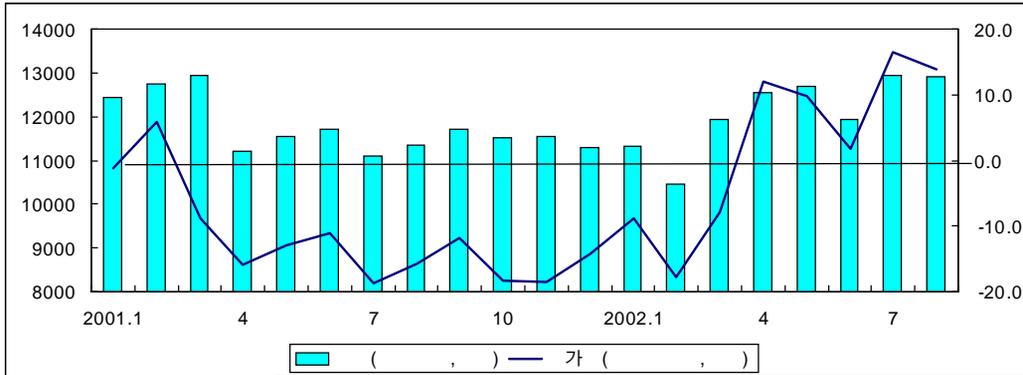
단위 : 전년동기비(%)

	2001년					2002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1~20
미 국	-0.6	-16.2	-21.7	-26.0	-17.0	-6.8	4.9	11.7	17.4
E U	3.5	-16.4	-18.2	-29.9	-16.2	-10.6	2.0	13.9	9.5
일 본	-1.1	-13.3	-28.9	-31.8	-19.3	-30.8	-13.1	21.8	11.2
아세안	-9.1	-19.6	-23.5	-20.2	-18.3	-3.1	16.6	24.4	8.0
중 국	10.5	2.6	-7.1	-9.1	-1.4	4.7	18.4	31.4	42.4
중 동	6.4	-7.7	-13.0	-7.5	-5.9	-5.9	5.9	13.3	-0.6
중남미	29.8	9.4	-15.9	-6.2	3.9	-30.8	-7.7	21.0	115.5

수입 :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큰 폭의 증가세

- 수입은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2/4분기중 증가세로 반전된 이후 7~8월에는 증가율이 두 자리수로 상승
 - 7월과 8월의 수입증가율은 2000년 11월(20.7%) 이후 최고치
 - 금액면에서도 7월과 8월의 수입액은 2001년 3월(129.5억 달러) 이후 최고치

<그림 9> 수입금액과 증가율 추이



■ 용도별 수입동향

- 원자재수입은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 및 생산활동 호조 등이 반영되면서 4월 이 증가세가 지속하고 있으나 낮은 원유수입증가율의 영향으로 원자재수입증가율 전체 수입증가율보다는 하회. 7~8월중 원유수입증가율은 도입물량이 소폭 증가 그친데다 그나마 도입단가 하락에 의해 일부 상쇄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6% 가에 그침.

* 국제유가(Dubai, \$/배럴) : (01.7~8) 24.0 → (02.7~8) 24.9 : 3.7%
 도입단가(\$/배럴) : (01.7~8) 26.2 → (02.7~8) 26.0 : -0.8%
 도입물량(백만배럴) : (01.7~8) 59.6 → (02.7~8) 61.0 : 2.3%

- 자본재 수입은 국내 설비투자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2/4분기 이후 두 자리수 증가세를 지속
- 소비재수입은 20%대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

<표 3> 용도별 수입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2001년			2002년			
	7월	8월	연간	1/4	2/4	7월	8.1~20
원자재수입	-17.4	-8.5	-9.4	-14.2	1.2	9.5	7.4
자본재수입	-26.3	-27.8	-20.2	-16.0	12.5	22.2	17.4
소비재수입	5.0	3.1	8.4	21.0	20.8	28.2	26.1

국제수지 : 경상수지흑자 축소추세 , 자본수지는 6월 이후 흑자로 반전

- 상품수지가 지난 해와 같은 규모의 흑자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서비스수지적자가 확대되면서 경상수지의 흑자규모는 크게 축소
 -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상반기중 크게 감소한데 이어 7월중에는 0.3억 달러로 축소되면서 1~7월중 흑자규모(35.5억 달러)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흑자규모(69.7억 달러)의 절반수준에 그침.
 - 상품수지는 1~7월중 89.5억 달러의 흑자를 보여 지난해 같은 기간의 흑자규모(91.5억 달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
 - 서비스수지가 1~7월중 37.6억 달러의 적자를 보여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적자규모(13.1억 달러)에 비해 약 2.9배 증가. 1~7월중 적자규모의 약 55%(20.5억 달러) 여행수지의 악화에 기인
- 자본수지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로 2/4분기중 적자를 보였으나 7월중에는 단기 무역신용도입, 해외증장기채발행, 예금은행의 단기차입금 도입 등으로 큰 폭(29.4

전망과 정책과제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금년중(1~7월)에 36.5억 달러의 흑자

<표 4>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단위 : 억 달러

	2001년					2002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1~7월
경상수지	27.7	37.6	10.3	10.5	86.2	17.1	18.1	0.3	35.5
상품수지	32.6	50.4	29.2	21.7	133.9	32.6	44.0	9.3	85.9
서비스수지	-2.1	-6.4	-14.3	-12.4	-35.3	-14.3	-15.0	-8.3	-37.6
소득수지	-3.8	-5.3	-1.3	1.6	-8.9	-0.2	-7.5	2.5	-5.2
경상이전수지	1.1	-1.1	-3.3	-0.4	-3.6	-1.0	-3.3	-3.3	-7.6
자본수지	-41.9	-30.3	13.0	23.4	-35.8	9.2	-2.0	29.4	36.5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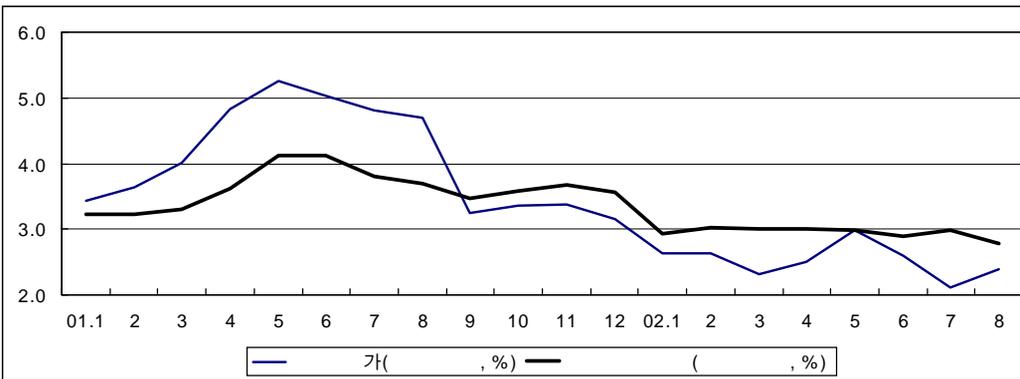
3. 물가부문

소비자물가 : 3%미만의 안정세지속

- 소비자물가의 전년동월비 상승률이 6월 이후 2%대의 안정세를 지속
 - 6월과 7월중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하락, 그리고 일부 공요금(주택용 전기요금, 건강보험 약가)의 인하 등으로 전월비 2개월 연속 하락(6월 -0.1%, 7월 -0.3%)했으며 이에 따라 전년동월비 상승률이 둔화(5월 3.0% → 6월 2.6% → 7월 2.1%)

- 8월중에는 호우와 수해 영향에 따른 농산물가격 상승으로 전월비 0.7%, 전년동월로는 2.4% 상승
- 근원인플레이션(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 증가율)도 3% 이하에서 안정세 지속

<그림 10> 소비자물가와 근원인플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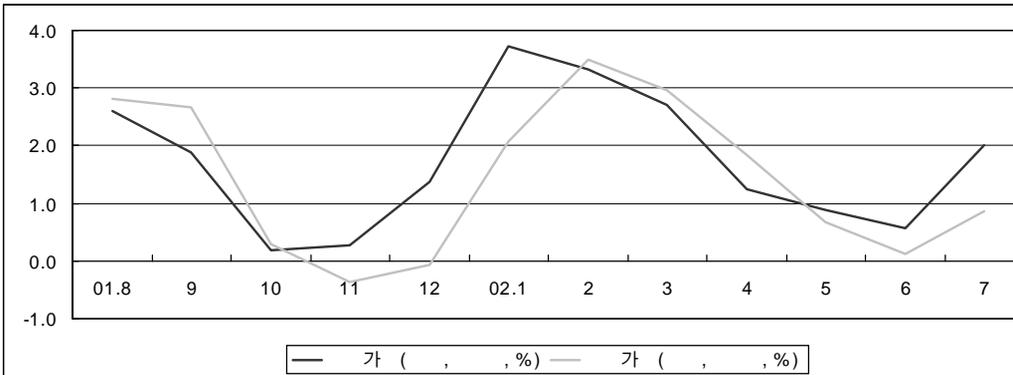
<표 5> 소비자물가의 전월비증가율(%)

	'02. 1	2	3	4	5	6	7	8
총지수	0.6	0.5	0.6	0.6	0.4	-0.1	-0.3	0.7
상품	1.0	1.5	-0.3	0.9	0.7	-0.3	-0.7	1.1
농·축·수산물	2.9	4.1	-1.4	0.7	1.2	-1.4	-2.2	4.6
공업제품	0.3	0.7	0.1	1.0	0.4	0.2	-0.3	0.1
서비스	0.3	-0.4	1.1	0.3	0.3	0.0	0.1	0.2
집세	0.4	0.4	0.4	0.6	0.6	0.5	0.5	0.3
공공서비스	0.0	-2.0	0.9	-0.2	0.3	-0.7	-0.2	0.0
개인서비스	0.3	0.4	1.6	0.4	0.1	0.1	0.2	0.2

부동산가격 : 7월 들어 상승세 확대

- 금년 들어 상승세가 둔화되던 서울지역 매매 및 전세가격이 7월중에는 상승세가
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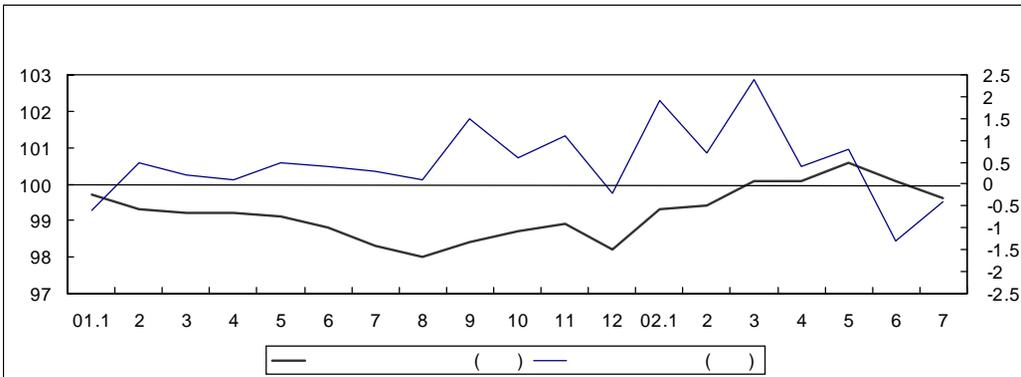


경기종합 판단 : 내수에서 수출 주도의 회복국면으로 전환...
회복세 지속은 불투명

- 지난해 3/4분기 이후 내수주도의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가 금년 2/4분기 이후 내수
둔화되고 수출회복이 빨라지면서 수출주도의 회복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단되나 향후 회복세 지속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
-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5월까지 상승세를 보이다 6월 이후 다시 하락함에 따라
기회회복속도가 다소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선행지수는 6월 이후 전월

비 연속 2개월 감소함에 따라 향후 경기회복세 둔화를 시사하고 있음.

<그림 12> 경기종합지수



- 설비투자 회복세 부진으로 잠재성장능력의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둔 지속, 미국의 경기회복지연 및 이라크전쟁 가능성,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 등으로 향후 경기가 불투명한 상태
- 금년 8월까지 2%대에서 안정세를 보이는 소비자물가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상승압력을 받을 전망이나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수해로 인한 농·수산물가격 상승 등 일시적 상승요인이 있으나 하반기 공공요금의 지속적인 인하가 예상되고 부동산가격의 급등세도 진정될 것으로 기대되어 가상상승압력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중동정세불안에 따른 유가상승 향후 국내물가에 가장 큰 불안요인이 될 가능성

4. 통화 · 금융부문

민간신용 공급 감소로 통화지표 하락세 지속

- 국내외 경제 불투명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통화당국은 5월중 콜금리목표를 4.0%에 4.25%로 0.25%p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동결한 상태
 - 그러나 최근 들어 부동산가격 오름세가 확산되고 국제유가 급등세 등으로 물가 상승압력이 확산될 우려감이 높아짐에 따라 콜금리목표 인상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M3증가율은 4월과 5월중 13.7%를 유지하였으나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둔됨에 따라 6월 들어 하락세로 반전되어 13.5%를 기록
 - 금년 들어 상승세를 보였던 M2 및 MCT 증가율은 3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여 8월중 각각 12.1%, 11.1%까지 하락

<표 6> 주요 통화지표 추이

단위 : 평균기준, 전년동기대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연간	연간	연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p	8월
본원통화	12.1	20.2	11.5	16.1	13.7	14.0	7.1	20.3	17.6	17.0	17.8	16.3	14.9	15.1
M2	27.9	30.2	15.7	14.0	13.4	13.8	12.6	14.9	16.1	15.7	14.5	13.8	12.6	12.1
MCT	7.7	14.4	10.1	10.7	11.2	12.3	11.9	12.8	13.3	13.5	12.8	13.1	11.6	11.1
MCT+ ¹⁾	5.3	15.1	12.6	13.9	13.3	13.4	12.4	13.9	14.4	14.8	14.1	14.0	12.6	12.1
M3	11.3	5.6	9.6	11.8	11.4	11.3	11.6	11.9	12.9	13.7	13.7	13.5

주 : 1) MCT+=MCT + 표지어음 + RP + 금융채
 자료 : 한국은행

자금사정 : 6월 이후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증가세 둔화

- 은행들의 여유자금 대출경쟁으로 2/4분기 들어 기업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6월 이후 증가폭이 현저히 둔화되는 모습
 - 대기업들이 양호한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반기말 부채비율관리를 위해 일시상환했다 대출을 재대출한 7월을 제외하고는 2/4분기 이후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하는 모습
 - 중소기업 대출도 단기운영자금 수요가 크게 확대되면서 2/4분기 중에는 4조원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2조원대로 그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었음.
 - 가계대출은 월중으로는 사상최대치인 7조 6,950억원이 증가하는 급증세를 보인 3

전망과 정책과제

이후 증가추세가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8월 들어 다시 증가추세 반전.

- 일부 대기업들이 금리하락에 따라 자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회사채발행을 늘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2/4분기중 회사채 순상환기조가 이어졌음. 순상환 규모는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나 반기부채비율 관리를 위해 일시 상환하였던 6월에는 규모가 1조 9,728억원으로 크게 증가
 - 7월에는 6월중의 회사채 일시상환분이 재발행됨에 따라 상환규모가 다시 4,490억으로 축소되었으며 8월에는 순증기조로 전환되는 모습
 - CP발행은 기업들의 반기 부채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상환 여파로 6월중 순상환 조에서 7월 이후 다시 순발행 기조로 전환

<표 7> 은행대출(신탁포함) 추이¹⁾

단위 : 증감액, 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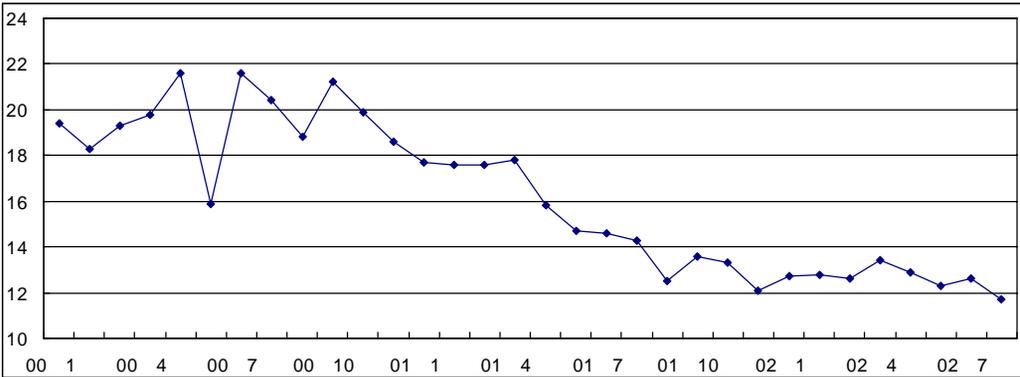
	2001년			2002년					
	3/4	4/4	연간	1/4	4월	5월	6월	7월	8월
은행대출	59,482	165,154	490,472	310,048	111,756	104,959	74,034	65,703	86,28
기업대출	62,927	-2,668	130,495	127,72	43,150	44,653	28,690	25,205	30,87
(대기업)	-4,314	-26,820	-33,994	34,494	-2,187	-3,793	-12,173	2,627	1,11
(중소기업)	67,241	24,152	164,489	92,678	45,337	48,446	40,863	22,578	29,76
가계대출	117,376	169,866	448,267	174,359	66,737	65,038	44,562	40,769	54,37
회사채순발행 ²⁾	38,435	-63,905	82,793	-27,372	-11,738	-1,647	-19,728	-4,490	15
CP순발행	33,569	-23,996	78,258	49,004	34,615	25,883	-26,152	18,731	11,72

주 : 1) 부실채권정리,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 장부상의 증감요인 제외, CLO포함
 2) 일반기업 발행분

자료 : 한국은행

- 기업들의 긴급자금수요를 나타내는 지표인 당좌대출한도 소진율은 금년 들어 세
 납부를 위한 자금수요가 늘어났던 4월을 제외하고는 12%대에서 안정세를 보였으
 8월 들어 11%대로 하락

<그림 13> 은행 당좌대출소진율 추이



전국어음부도율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낮은 수준 유지

- 전국 어음부도율은 5월과 6월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인 0.04%까지 하락하였으
 7월 중에는 0.06%로 소폭 상승
- 전국 부도업체수는 7월중 369개로 전년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였으
 5월 이후 다시 증가하는 모습
-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비율은 전년도 평균수준보다는 여전히 높으나
 7월 이후에는 17배 수준으로 하락

<표 8> 전국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수 추이

단위 : %, 개,

	2000년	2001년					2002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6월	7월
어음부도율(전국) ¹⁾	0.26	0.33	0.23	0.20	0.17	0.23	0.08	0.08	0.04	0.04	0.00
서울	0.34	0.34	0.24	0.20	0.17	0.23	0.08	0.08	0.03	0.03	0.00
부도업체수(전국)	6,718	1,525	1,335	1,147	1,270	5,277	1,000	311	317	349	369
서울	2,559	580	486	441	490	1,997	375	121	132	129	140
신설법인/부도법인 ²⁾	14.8	14.9	17.1	19.7	17.6	16.9	23.3	24.8	23.8	17.0	17.0

주 : 1)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후 수치임.

2)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등 8대 도시 기준임.

자료 : 한국은행

주가 및 금리전망 불투명으로 단기성 부동자금 증가

- 2/4분기 이후 주식시장 조정이 장기화되고 있고 채권시장 금리도 기대수준 이하에 움직임에 따라 시중자금이 은행과 투신권의 단기성 예금으로 유입되고 있음.
- 7월중에는 세금납부 등으로 은행권의 수신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8월 중 정부 민간 부문 모두 유동성공급이 늘면서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월중 9조 5,293억 증가하였음.
- 8월중에는 투신사의 초단기 수신인 MMF가 2조 4,614억원 급증하였으며 채권형 익증권도 전월보다 크게 증가한 1조 7,507억원 증가하였음.

-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논란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이 부진을 면치 못
에 따라 자산가격 거품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주가 및 금리전망에 대한 불
명성 증가로 자금의 단기화현상이 더욱 심해진 상황임.
- 은행권의 1년 이상 장기저축성 예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최근 도입된 CD
리연동 회전식 정기예금 수신증가에 크게 기인하며 동 예금의 성격상 근본적으
장기성 예금이 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주가조정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신사의 수신도 MMF와 채권형 상
을 중심으로 4조 3,452억원이나 증가
- 은행금전신탁은 하반기 들어서도 금리상승 기대감에 따르는 자산운용수익률 하
전망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전망과 정책과제

<표 9> 금융기관별 주요수신 동향

단위: 억원, 증감액 기

	200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8월말잔	
은행계정	28,355	125,257	136,427	-12,438	65,774	62,845	-34,017	95,293	5,167,24	
실제요구불	-4,051	21,481	878	-1,469	-13,195	12,210	-8,370	9,235	367,64	
저축성예금	17,806	78,941	94,360	-13,974	50,978	28,449	-13,129	69,680	4,293,39	
(정기적금)	22,632	50,036	62,893	4,439	47,362	29,050	15,570	36,916	2,352,90	
(수시입출식)	-2,073	29,169	43,539	-23,981	-1,907	-2,819	-33,946	29,408	1,319,24	
<MMDA>	446	5,182	22,898	-19,711	-7,726	-9,072	-19,842	13,749	431,49	
CD+RP+표지어음	14,600	24,835	41,189	3,005	27,991	22,186	-12,518	16,378	506,20	
금전신탁	-16,233	-25,902	-10,862	-1,725	-2,249	-2,853	-6,219	-3,529	714,50	
추가금전	-4,399	-2,550	-1,592	-714	-1,599	-769	-237	-679	41,56	
신노후연금	-5,840	-13,474	-11,155	-5,366	-3,701	-2,459	-2,429	-2,981	45,59	
단위금전	1,396	-178	-1,043	692	62	-91	-1,308	-13	32,97	
신종적립	-4,183	-3,681	-4,741	-4,581	-4,585	-3,009	-5,078	-2,620	73,17	
특정금전	3,191	-1,103	15,336	13,201	15,618	5,762	6,508	7,535	278,79	
기타	-6,398	-4,916	-7,667	-4,957	-8,044	-2,287	-3,675	-4,789	242,40	
투신사	40,011	65,077	45,078	-40,183	36,454	-30,806	20,202	43,452	1,653,05	
단기채권투자신탁	-3,902	8,303	11,860	-1,283	1,381	4,693	15,597	17,195	309,21	
장기채권투자신탁	-23,494	-15,542	-27,607	-25,794	-8,938	-10,711	-12,826	312	256,84	
MMF	51,538	51,182	27,154	-42,586	21,651	-25,129	12,095	24,614	473,08	
주식투자신탁	-1,505	4,193	14,766	1,061	6,230	1,076	-1,046	1,329	92,33	
혼합투자신탁	19,564	16,941	18,905	28,419	16,130	-735	6,382	2	521,56	
종금사	8,983	4,938	5,641	-3,292	905	-8,561	4,357	1,813	102,13	
채신예금	-2,890	495	-1,966	112	59	8,487	-10,622	1,112	289,60	
증권사고객예탁금	20,054	-7,908	12,314	-3,173	-14,819	-6,271	-2,282	-1,482	92,01	
주식형뮤추얼펀드	-952	-151	10,142	1,333	-1,415	2,628	227	35	64,58	

자료: 한국은행

경기회복 가시화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조정양상 지속

- 2/4분기 들어 산업생산이 호조세를 보이는 등 경기회복이 가시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미국증시 약세의 영향으로 조정장세가 지속되었음.
- 하반기 들어서도 그동안 단기급락에 따른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등락을 거듭했으나 전반적으로 미국증시 약세와 국내외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대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주식시장은 9월 들어서도 약세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표 10> 주가 추이

	2001년		2002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종합주가지수	643.89	693.70	748.07	819.99	895.58	842.34	796.40	742.72	717.99	760.4
코스닥지수	70.52	72.21	77.36	78.71	92.73	73.34	69.78	60.85	58.62	59.1
다우존스지수	9,852	10,022	9,920	10,106	10,404	9,946	9,925	9,243	8,737	8,66
나스닥지수	1,931	1,905	1,934	1,731	1,845	1,688	1,616	1,463	1,328	1,31

주 : 월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 외국인 투자자들은 3월 이후 국내외 경제여건과 관련하여 국내증시 전망을 불투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순매도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미국증시의 약세 지속으로 미국내 뮤추얼펀드의 환매요구 등에 따라 국내주식을 이익실현 차원에서 매도하는 데 기인하는 바 크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임.

<표 11> 외국인 주식 순매수 추이

단위: 기간중 일일평균 증감, 억

	2001년		2002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주식순매수 ¹⁾	877	338	136	264	-563	-512	-306	-123	-164	-554
거래소	739	247	58	194	-592	-650	-356	-129	-150	-533
코스닥	138	91	78	70	29	138	50	6	-14	-21

주: 1) 현물기준
 자료: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 기업들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 들어서는 다소 증가하는 모습
- 고객예탁금은 상반기 10조원대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여전히 9조원대로 주식시
 수급사정은 크게 나쁘지 않은 편임.

<표 12> 주식시장 수급양상 추이

단위: 억

	2000년	2001년	200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유상증자	41,939	50,903	12,688	4,270	3,250	376	1,759	6,432	9,141	2,641
기업공개	11,269	2,178	165	0	66	4,640	0	0	906	3,311
계	53,208	53,081	12,853	4,270	3,271	5,016	1,759	6,432	10,047	2,952
고객예탁금잔액	60,576	77,510	115,633	107,725	120,038	116,866	102,047	95,776	93,493	92,011
신용융자잔고	6,828	1,749	2,589	2,858	3,472	3,501	3,736	3,095	2,371	2,081

주: 고객예탁금잔액과 신용융자잔고는 기말기준
 자료: 한국은행, 증권업협회, 한국증권전산

5월 콜금리목표인상 불구, 장기금리 하락세 단기금리는 안정세

- 5월중 콜금리 목표 인상으로 장기사장금리가 일시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미국경제표가 혼조세를 보이고 국내 증시의 조정양상이 길어짐에 따라 하락세를 지속
 - 국고채 발행물량 축소, 예보채 신규발행 중단, 회사채 순상환기조 지속 등 전반적인 채권공급 물량 부족현상도 장기사장금리 하락 폭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
 - 장기사장금리는 환율절상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 우려감이 희석되고 향후 국내기의 본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됨에 따라 8월 중순에는 연중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여 국고채 유통수익률 기준 5.24%를 기록하기도 하였음.
 - 이후에도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 영향이 지속되면서 국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불실성의 증폭으로 8월 하순이후 장기사장금리의 반등은 소폭에 그친 가운데 9월어서도 다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
- 반면 CD유통수익률과 콜금리 등 단기사장금리는 콜금리목표 인상의 영향으로 5월 들어 상승 추세를 보인 이후 금융기관 수신 동향에 따라 등락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
 - 이에 따라 9월 현재 단기사장금리는 5월의 콜금리 인상시점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2/4분기 이후 콜금리목표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는 하락한 반면 단기금리는 정세를 보임에 따라 장단기금리차는 크게 축소되는 모습

<표 13> 주요 시장금리 추이

단위: 연리(%)

	2000년	2001년	2002년							
	12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콜(익일)(A)	6.01	4.00	3.97	3.94	3.99	4.00	4.24	4.29	4.27	4.31
CP(91일)	7.26	5.07	4.80	4.60	4.98	4.86	4.94	5.03	5.05	4.80
국고채(3년)(B)	6.70	5.91	6.03	6.68	6.39	6.33	6.14	5.66	5.93	5.34
회사채(3년)(C)	8.13	7.04	6.97	5.71	7.07	7.11	6.90	6.59	6.77	6.02
B - A(%P)	0.69	1.91	2.06	1.77	2.40	2.33	1.90	1.37	1.66	1.03
C - A(%P)	2.12	3.04	3.00	2.74	3.08	3.11	2.66	2.30	2.50	1.71

주: 월말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일일금융시장 동향

달러약세기조 진정으로 원달러환율 1,200원대에서 안정세

- 원/달러환율은 엔/달러환율의 급등락에 동조하면서 4월 중순 1,330원대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미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달러매도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7월 하순은 1,160원까지 급락
- 이후 원/달러환율은 정부가 급격한 환율 하락에 대한 강력한 우려감 표명을 비롯한 간접적 외환시장 개입으로 급락세는 진정되었으며 최근에는 엔/달러환율 변동과 동되어 1,200원을 전후하여 등락을 거듭하는 양상
- 2/4분기 이후의 원/달러환율 하락은 원화 가치 자체가 상승하였다기 보다는 달러 가치가 하락한 데 기인하는 바가 큼.

- 최근에는 미국 증시침체가 이어짐에 따라 국내투자펀드 환매요청수요에 부응하
 위해 해외투자부문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달러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동안 달러 과매도에 대한 반작용도 작용하여 달러가치 하락세는 다소 안정적인
 면에 진입

<표 14> 원화 및 엔화 환율 추이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12월말	12월말	12월말	3월말	4월말	5월말	6월말	7월말	8월말
원/달러 ¹⁾	1,145.40	1,267.50	1,313.5	1,325.9	1,292.2	1,233.3	1,201.8	1,197.0	1,200.3
	(5.8)	(-10.0)	(3.1)	(0.2)	(-2.5)	(-4.6)	(-2.6)	(-0.4)	(0.3)
엔/달러 ²⁾	102.23	114.41	131.64	132.78	127.95	123.90	119.21	119.80	118.40
	(11.0)	(-10.6)	(6.6)	(-0.6)	(-3.6)	(-3.2)	(-3.8)	(0.5)	(-1.2)
원/100엔 ³⁾	1,111.17	1,101.78	1,009.4	998.95	1,008.31	998.50	1,004.51	994.35	1,013.4
	(-4.6)	(0.9)	(-2.7)	(1.1)	(0.9)	(-1.0)	(0.6)	(-1.0)	(1.9)

주 : 1) 종가기준 2) 뉴욕시장 종가

3) 외환은행고시 대고객 매매기준율(당일 최종고시가)

4) ()내는 전월말대비 달러화 대비 원화 및 엔화 가치의 절상(-), 절하(+)%

- 총대외채권은 2002년 7월말 현재 1,735억 달러이며 순채권 규모는 443억 달러로
 난해말에 비해 총대외채권은 116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단기외채를 중심으
 외채 역시 크게 늘어 순채권은 23억 달러 증가에 그침.
- 총대외지불부담규모는 1,291억 달러로 지난해말 대비 99억 달러 증가

<표 15> 총대외채무와 채권동향

단위:억 달러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연말	연말	연말	3월말	4월말	5월말	6월말	7월말
총대외지불부담	1,371	1,363	1,199	1,195	1,221	1,236	1,258	1,291
장기외채	978	921	810	783	782	790	781	785
단기외채 (비중)	392 (28.6)	442 (32.4)	389 (32.4)	412 (34.5)	438 (35.9)	445 (36.0)	477 (37.9)	507 (39.3)
총대외채권	1,458	1,669	1,619	1,649	1,663	1,696	1,714	1,735
순채권	-202	306	420	454	443	461	455	443

자료 : 재정경제부

제 2 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1. 성장

미국 : 본격적인 경기회복은 내년이나 가능

- 올해 2/4분기의 GDP성장률(연율)은 전기대비 1.1%에 그쳐 성장률이 1/4분기에 비 크게 둔화되었으며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은 혼조
 - 소비자신뢰지수가 7월 97.4 → 8월 93.5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제조업 PMI지수는 예상치인 51.8을 하회하여 가까스로 50선을 유지. 산업생산증가율도 7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둔화(6월 0.7 → 7월 0.2)
 - 그러나 8월 실업률은 전월에 비해 0.2% 하락한 5.7%를 기록. 이는 지난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고조
- 이에 따라 주요 예측기관들은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함. 그러나 과잉설투자가 해소되는 2003년에는 성장률이 2002년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

전망과 정책과제

- 모건스텐리와 매릴린치는 하반기 성장률을 당초(4월 전망) 각각 4.0%, 4.5%에 2.25%와 3.5%로 하향 조정
- DRI-WEFA는 설비투자 증가율이 올 3/4분기 2.9%, 4/4분기 6.0%에서 2003년 1/4분 2/4분기에는 각각 9.4%, 8.3%으로 높아져 내년 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
- 메릴린치는 내년 성장률을 금년보다 높은 4.0%로 전망

<표 16> 미국의 경제성장과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전기대비

	2000년	2001년			2002년					
		연간	3/4	4/4	1/4	2/4	5월	6월	7월	8월
GDP성장률	3.8	0.3	-0.3	2.7	5.0	1.1	-	-	-	-
소 비	4.4	2.5	1.5	6.0	3.1	1.9				
투 자	6.1	-3.8	-4.3	-8.9	-0.5	-1.2				
정부지출	2.7	3.7	-1.1	10.5	5.6	1.8				
수 출	9.7	-5.4	-17.3	-9.6	3.5	12.3				
수 입	13.2	-2.9	-11.8	-5.3	8.5	22.8				
산업생산증가율	4.1	-3.9	-1.2	-1.7	0.7	1.1	0.5	0.7	0.2	-
제조업평균가동률	80.7	75.1	74.5	73.1	73.5	75.7	74.0	74.4	74.4	-
소매판매	6.7	3.8	-0.2	3.1	-0.6	-0.1	0.5	0.1	1.2	-0.1
실 업 륜	4.0	4.8	4.8	5.6	5.6	-	5.8	5.9	5.9	5.7
노동생산성 ¹⁾	2.9	1.1	2.1	7.3	8.6	1.5	-	-	-	-
단위노동비용	3.9	1.6	-1.1	-5.4	-4.6	2.4	-	-	-	-
소비자신뢰지수 ²⁾	139.0	106.6	109.1	88.3	101.2	108.4	110.3	106.3	97.4	93.3
PMI ³⁾	51.6	43.9	46.0	44.1	53.4	55.3	55.7	56.2	50.5	50.3

주 : GDP국민계정은 SAAR

1) 비농전산업, 2) Conference Board(1985=100), 3) 공급자관리협회(기준치=50)

자료 : 미국 상무부, 노동부, 연방준비위원회, 공급자관리협회(ISM)

일본 : 2/4분기 0.6% 성장... 완만한 경기회복 지속

- 2/4분기 GDP는 전기대비 0.6% 증가(연율 2.6%)하여 5분기만에 플러스 증가세로 전.
 - 미국과 아시아의 경기회복세를 반영하여 수출은 전기비 5.7% 증가하여 GDP상승 크게 기여하였으며, 개인소비는 소비자심리의 개선으로 전기비 0.3%(연율 1.1%) 가하였으나 투자는 전기비 -0.4%(연율 -1.5%) 감소하여 성장세를 둔화시킴.
- 그러나 일부 경제지표들이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회복 지속 여부는 확실.
 - 7월 소매판매액이 전월(6월)에 비하여 감소폭이 확대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의 실물 수준이 지속되고 있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 디플레이션이 지속.
- 일본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기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0.0~0.8%정도의 완만한 회복세를 예상.
 -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수출회복과 산업생산증가가 경제전체에 파급되고 기업설비자가 3/4분기부터 전기비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여 올해 경제성장률 0.4%에서 0.8%로 상향조정 전망하고, 2003년 경제성장률은 美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로 1.3%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 일본 다이와종합연구소는 경기회복속도가 완만해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각 0.5%, 1.8%에서 9월에는 각각 0%, 1.2%로 하향조정

<표 17>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2000년	2001년			2002년				
		연 간	3/4	4/4	1/4	2/4	5월	6월	7월
GDP성장률 ¹⁾	2.4	-0.2	-0.7	-0.7	-0.0	0.6			
소 비 ¹⁾	0.6	1.4	-0.1	0.1	0.5	0.3			
투 자 ¹⁾	10.4	0.2	-2.6	-4.0	-1.9	-0.4			
정부지출 ¹⁾	4.6	2.9	0.6	0.7	0.3	0.6			
수 출 ¹⁾	12.4	-7.0	-3.2	-1.7	4.8	5.7			
수 입 ¹⁾	9.6	-0.8	-3.0	-2.2	-0.0	2.6			
광공업생산지수	5.8	-7.5	-10.7	-14.2	-10.5	-3.4	-2.0	-1.2	0.6
생산자출하	6.0	-7.2	-10.2	-13.4	-9.4	-1.9	0.2	-1.0	0.4
생산자재고	2.2	2.5	3.4	-0.3	-5.7	-11.4	-11.4	-12.1	-10.3
가 동 률	4.1	-6.7	-8.8	-11.2	-6.6	-1.5	0.3	0.1	-
소매판매액	-1.6	-2.2	-3.0	-4.6	-5.4	-3.8	-3.2	-3.8	-5.3
민간기계수주 ²⁾	-19.0	-5.8	-10.3	-18.6	-19.8	-14.1	-16.3	-7.8	-
실 업 률	4.7	5.0	5.1	5.4	5.3	5.3	5.4	5.4	5.4
소비자물가	-0.7	-0.7	-0.8	-1.0	-1.4	-0.9	-0.9	-0.7	-0.8

주 : 1) 전기대비 기준임.

2) 선박·전력 제외

자료 :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일본은행 등

참고 : 통계산출방식의 변경(8/30)으로 1/4분기 성장률은 1.4%에서 -0.0%(연율 -0.1%)로 변경. 호

연도기준으로는 2001년은 -1.3%에서 -1.9% 성장

EU : 유로경제의 성장세 둔화 전망

- 2/4분기 유로지역 GDP는 美경기회복에 따른 수출의 큰 폭 확대로 전년동기대

0.6%(전기비 0.3%)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소비와 기업에 대한 심리지수들이 약되고 있어 향후 경기회복세 지속 여부 불투명.

- 8월 유로존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8로 전월대비 0.8포인트나 급락하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여 4개월만에 최저치 기록. 또한 경기체감지수도 하락세로 전
- 독일의 산업생산, IFO재계지수의 하락, 이탈리아의 ISAE재계신뢰도 하락
- EU 집행위(EC)는 유로화 강세에 따른 해외수요 둔화 우려, 경제주체들의 심리악화 및 추가하락에 따른 영향과 내수회복이 여의치 못하다는 인식으로 하반기 경제전망을 당초 0.6~0.9%에서 0.3~0.6%로 하향조정
- Deutsche bank는 2002년과 2003년의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1.1%, 2.7%에서 1.0%, 2.4%로 하향조정, 모건스탠리는 2002년 성장률을 1.4%에서 1.1%로, 2003년 3.2%에서 2.8%로 하향조정

<표 18> EU의 주요경제지표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00년	2001년			2002년					
		연 간	3/4	4/4	1/4	2/4	3월	4월	5월	6월
GDP성장률	3.5	1.4	1.4	0.4	0.3	0.6				
소 비	2.5	1.7	1.8	1.5	0.4	0.3				
투 자	4.7	-0.5	-1.5	-2.5	-2.7	-2.9				
정부지출	1.9	2.2	2.1	1.4	1.9	1.8				
수 출	12.2	2.5	1.0	-3.3	-3.0	0.0				
수 입	10.9	0.8	-0.5	-4.9	-4.5	-2.2				
산업생산지수	6.0	0.0	-0.5	-4.8	-3.5	-	-2.7	-1.4	-1.7	-
소 매 판 매	2.4	1.4	1.2	1.3	1.1	-	1.4	0.7	-	-
경기체감지수	2.6	-2.7	-1.3	-1.4	0.4	0.4	0.3	-0.1	0.5	-0.3
실 업 률	8.4	8.0	8.0	8.1	8.2	-	8.2	8.3	8.3	-
제조업PMI	57.4	47.8	46.9	43.6	48.3	51.3	50.0	50.7	51.5	51.8
CPI상승률	2.3	2.5	2.4	2.1	2.6	2.1	2.5	2.4	2.0	1.8

주 : GDP국민계정은 SAAR

자료 : ECB, Monthly Bulletin(2002.8), EUROSTAT.

2. 국제유가

국제유가 : 이라크공격 상황전개에 따라 유동적

- 미국의 이라크 공격임박설로 중동지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원재고감소발표(2001년대비 3.8% 감소), 미국경제 회복에 따른 석유수요 증가 기

OPEC증산 불허 등이 함께 발표되면서 국제유가는 상승세

- 8월 20일 한때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9월 인도분 WTI(서부텍사스 증질) 배럴당 30.11달러에 거래되며 작년 5월 이후 최고치 기록
- 향후 국제유가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 임박가능성과 OPEC의 증산 여부에 따라서 정될 전망
 - 미국 에너지정보국(EIA)은 WTI기준으로 배럴당 24~35달러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
 -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공격이 유보되고 OPEC의 증산이 소규모 그칠 경우, 4/4분기 두바이 가격은 \$24~\$26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망됨. 미국의 대 이라크 공격이 이루어질 경우, 이후의 상황 전개에 따라서 최 \$31~\$33, 최저 \$16~\$18 수준 전망

<표 19> 국제 원유가격 현물추이(기간평균)

단위 : \$/barrel

	월평균				최근동향			
	5월	6월	7월	8월	9/4	9/5	9/6	9/9
WTI	27.03	25.49	26.75	28.36	28.48	29.02	29.59	29.73
Brent	25.66	24.43	25.86	26.60	27.16	27.74	28.45	28.53
Dubai	24.74	23.15	24.66	26.31	25.84	26.34	26.83	26.95

3. 국제금리 및 환율

국제금리 : 하반기 경기상승 기대로 소폭 상승 전망

- 미국, 일본, EU의 장·단기금리 하락세
 - 미국은 주식시장 침체에 따른 채권수요 증가와 경제둔화에 따른 금리하락기대 확산되어 장·단기금리 하락
 - 일본은 경제전망에 대한 우려와 경기둔화를 막기 위한 일본은행의 추가적인 금완화정책에 의해 장·단기금리 하락
- 하반기 금리는 경기회복에 대한 확실성에 따라 등락할 전망. 설령 경기회복에 기대가 확산되어 금리상승이 예상되더라도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상승폭 제한될 것으로 전망

<표 20> 주요국의 장·단기 금리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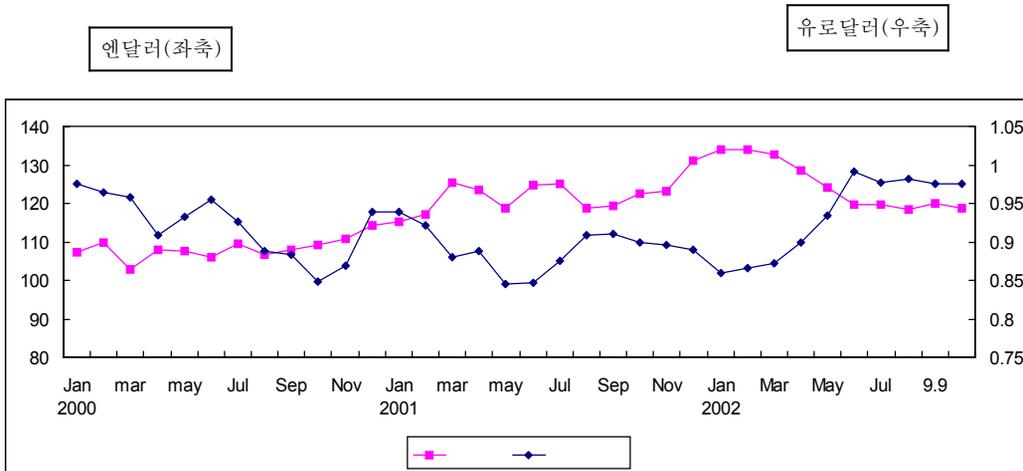
		2000년	2001년			2002년						
			연 간	3/4	4/4	1/4	2/4	5월	6월	7월	8월	9/9
단 기 금 리	미 국	6.53	3.78	3.45	2.14	1.90	1.92	1.91	1.88	1.85	1.80	1.80
	일 본	0.28	0.15	0.07	0.08	0.10	0.08	0.08	0.07	0.07	0.06	0.06
	유 로	4.40	4.26	4.27	3.44	3.36	3.44	3.46	3.46	3.41	3.36	3.31
장 기 금 리	미 국	6.03	5.01	4.99	4.14	5.06	5.09	5.15	4.90	4.62	4.13	4.06
	일 본	1.76	1.34	1.36	1.35	1.46	1.38	1.38	1.36	1.30	1.19	1.13
	유 로	5.44	5.03	5.12	4.82	5.14	5.25	5.30	5.16	5.01	4.57	4.41

주 : 단기금리는 3개월물 예금금리이며, 장기금리는 10년만기 국채수익률을 사용

환율 : 달러화 하반기에도 유로화·엔화에 대해 약세 전망

- 일본엔화와 EURO 통화에 대한 달러 약세기조가 하반기 들어 진정. 그러나 전반적인 달러화 약세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 그동안 美달러화는 과도한 경상수지 적자누적과 재정수지적자의 확대에 대한 우기업회계부정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로 주요 통화국에 대해 약세를 보였음.
 - 美달러화는 기업실적 개선 및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지만 상반기에 비하여 성장세의 둔화, 미국 주가의 고평가 인식, 엔론으로 대변된 미국기업에 대한 신뢰저하로 미국으로의 자본유입 둔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J.P.Morgan도 12월말 엔화와 유로화는 美달러화에 대해 각각 112엔, 1.04Euro로 전망함으로써 달러화 약세를 예상

<그림 14> 엔화 및 유로화 환율 추이(기말기준)



제 3 장

국내경제전망

1. 실물부문

올해 6.1%, 내년 5.8%의 견조한 성장세 지속 전망

- 하반기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우리경제는 8월 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집중적 정부지출과 수출의 회복세 지속에 힘입어 연간 성장률은 작년의 두 배인 6.1%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런 성장추세는 설비투자회복과 수출에 힘입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만 2001년 저성장(3.0%)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인 금년에 비해 내년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소폭 낮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8월 태풍 '루사'의 피해가 철도, 도로망 등 긴요한 사회간접시설에 크게 피해를 쳤기 때문에 이들의 복구를 위한 정부의 대규모 노력이 신속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는 바로 건설투자증가로 나타날 것임.
- 12월 선거를 앞둔 현 정부는 관련 예산의 확보와 집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되어 4/4분기까지 적지 않은 생산증가효과가 기대됨. 9월 11일 현재 피해액 추이 5조원을 넘고 있고 정부의 추경이 4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아울러 미국 회복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지역에 대한 수출증가에 힘입어 우리 수출이 비교적 빠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경기회복세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됨.
 - 하지만 민간소비의 높은 증가세에 일조한 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하반기중에 폐됨에 따라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의 증가세 둔화가 예상됨. 우선 상반기중 국내 생산 증가율(6.1%)을 훨씬 상회하는 8.0%의 증가율을 보인 민간소비가 하반기에 증가율이 6.1%로 둔화될 전망
 - 2003년에는 소비에 특별히 영향을 미칠 요인이 예상되지 않고 있어 민간소비 증가는 GDP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임. 반기별로 보면 폭의 증가세를 보였던 2002년 상반기의 영향으로 2003년 상반기에는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에는 경제성장률과 유사한 증가세를 회복할 전망
 - 설비투자의 경우, 일부 전통업종의 설비과잉, IT산업의 대규모투자 마무리, 미국 제를 비롯한 세계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여전히 보수적인 투자행태를 보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회복세 지속으로 투자심리가 점차 개선되고 있어 하반기 비투자자는 약 8%대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
 - 내년에는 경기회복세의 지속, 견조한 수출증가 전망 등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 2001~2002년 설비투자가 2년 연속 부진했던 데 대한 상대적인 영향으로 2003 설비투자는 금년보다 높은 증가율(8.9%)을 보일 전망
- 위와 같은 본원의 전망에 최소한 두 가지의 뚜렷한 위험변수(downside risk)가 존재함. 첫번째는 점점 실현가능성이 커져 가고 있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고 두 번째 12월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임.

-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우리경제에 두 가지 경로로 영향을 미칠 것임. 먼저 전쟁 상황이 초단기에 끝나지 않는다면 국제유가의 불안을 불러올 것임. 高유가는 우리 제의 대외거래, 물가 등에 악영향을 끼칠 것임. 다음으로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 제의 소비, 투자심리 냉각을 가져와 수출에 차질을 가져올 가능성이 큼. 미국 double dip 상황에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부정적 효과의 크기는 공격 따른 전쟁상황이 얼마나 길어지느냐에 달려있음.
- 만약 사태종결이 조기에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현재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부정적인 효과 더 클 전망이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사담 후세인의 제거를 뚜렷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군사작전으로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을 수 있음.
- 본원 전망은 이라크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반면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아직까지 대선구도가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으나 올해중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 경기향방에는 영향이 적을 듯.

2. 물가부문

소비자물가 상승률, 내년까지 3%대에서 안정될 전망

- 하반기 소비자물가는 내수둔화와 원화 강세의 영향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 다 지난 해 하반기의 낮은 상승률(상반기 4.3% → 하반기 3.8%)에 대한 반사효과로 내년 하반기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2.6%보다 소폭 높은 2.9%가 예상됨. 연

으로는 韓銀의 물가목표 범위 내인 2.8%의 물가상승이 예상된다.

- 태풍피해에 따른 농산물 수급차질로 소비자물가가 부분적으로 크게 오를 것이 단기간에 그칠 전망
- 국제유가의 상승추세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있으나 對이라크 군사행동이 조기에 종결된다면 유가는 하향 안정될 전망
- 내년중에도 금년에 이어 6%에 가까운 성장률을 이어가면서 물가는 다소 상승압력 받을 전망. 그러나 국제유가 안정(이라크 사태의 조기수습 전제하에), 원화환율의 상승추세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이에 이라크사태의 조기수습 전제하에 따라 내년 소비자물가는 금년과 비슷한 3%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3. 대외거래부문

경상수지 : 금년 43억 달러 흑자, 내년 7.4억 달러 적자 전망

- 하반기중에도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미국경기의 회복세에 빠르잖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출금액(국제수지기준)증가율은 연간 6.6% 증가할 것이며 이런 추세는 2003년까지 이어질 전망
- 금년과 내년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성장률 전망이 당초 예상보다는 하향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 전망기관들은 내년이 금년보다는 높을 것으로 전망

IMF의 미국경제전망 : 2002년 2.3%, 2003년 3.25%

OECD의 유로지역전망 : 2002년 1.25%, 2003년 3%

<표 21> 2002~2003년 국내경제 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억 달러(국제수지부분)

	2001년	2002년						2003년			
	연간	1/4	2/4	상반	3/4	4/4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국내 총생산	3.0	5.8	6.3	6.1	6.3	5.9	6.1	6.1	5.6	6.0	5.8
(제조업)	1.7	3.5	6.4	5.0	9.1	9.2	9.1	7.1	8.1	7.6	7.7
총소비	3.7	8.0	7.3	7.6	5.7	5.6	5.6	6.6	5.0	5.6	5.8
민간소비	4.3	8.4	7.7	8.0	6.1	6.1	6.1	7.0	5.4	5.8	5.8
고정자본형성	-1.6	6.5	5.6	6.0	5.0	3.8	4.4	5.1	4.7	6.6	5.8
설비투자	-9.7	3.2	7.4	5.2	9.1	7.5	8.3	6.7	7.7	10.2	8.8
건설투자	5.8	10.1	4.1	6.7	2.2	1.4	1.8	3.9	1.9	4.0	3.8
총수출	0.9	1.8	11.8	6.7	18.0	18.8	18.4	12.6	10.1	6.4	8.8
총수입	-2.8	6.2	19.2	12.5	24.1	24.8	24.4	18.6	13.2	9.6	11.8
수출											
수입											
생산자 물가	1.9	-0.1	1.1	0.5	1.7	2.8	2.3	1.4	2.2	2.0	2.2
소비자 물가	4.1	2.5	2.7	2.6	2.5	3.2	2.9	2.8	2.7	3.3	3.3
경상수지	86.1	17.1	18.1	35.3	5.1	2.6	7.7	43.0	8.9	-16.4	-7.7
상품수지	133.9	32.7	44.0	76.6	27.9	21.1	49.0	125.6	51.5	27.6	79.7
수출	1,513.7	361.3	406.1	767.4	421.0	424.8	845.8	1,613.2	832.2	896.9	1,729.7
증가율 (%)	-14.0	-11.1	5.1	-3.2	16.2	18.5	17.3	6.6	8.5	6.0	7.7
수입	1,379.8	328.6	362.1	690.8	393.1	403.7	796.8	1,487.6	780.8	869.3	1,650.0
증가율 (%)	-13.3	-12.1	7.8	-2.7	18.1	19.8	19.0	7.8	13.0	9.1	10.0
서비스, 소득, 이전수지	-47.8	-15.5	-25.8	-41.4	-22.8	-18.5	-41.3	-82.7	-42.5	-44.0	-86.8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이전수지											
원화 환율(원/\$, 기말)	1,326.1	1,326.4	1,201.3	1,201.3	1,190.0	1,180.0	1,180.0	1,180.0	1,165.0	1,150.0	1,150.0
회사채수익률(3년, 평균)	7.0	7.4	7.0	7.2	6.5	7.1	6.8	7.0	7.7	8.3	8.8

- 수입은 경기회복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수출보다는 빠른 7.8%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내년에는 시설투자회복과 함께 자본재수입증가가 예상되어 올해보다 더 높은 11%의 수입증가세가 예상된다.
- 수출증가세를 상회하는 수입증가세와 서비스수지의 적자 확대추세가 이어지면서 년 경상수지 흑자는 43억 달러로 축소되고 내년 하반기에는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년 연간으로는 약 7.4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 우리 수출의 본격적인 회복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미국경제의 본격성장이 필요하다.
 - 예를 들어 최근 우리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2001년이나 올 상반기 실적을 보면 미국에 대한 수출이 전체의 20~25%를 차지하고 있음. 수출 대 2위가 홍콩인데 그중 홍콩을 경유 다시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이 적지 않다고 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이 30%를 상회할 수도 있음. 따라서 미국경제의 회복이 지연된다면 이들 나라의 대미수출이 연결고리로 작용하여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의 경기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임. 이런 사정으로 우리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수출도 영향을 받게 됨.

4. 금융부문

- 4/4분기 중에도 경기 및 물가 추이를 감안한 한국은행의 신축적 유동성관리 기조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2003년도에는 경제 불투명성이 축소되고 경기회복이 가시 되겠지만 통화정책기조가 급선회할 가능성은 적음.
 - M3증가율이 13%대로 한국은행의 감시범위 상한을 이탈하고 있어 4/4분기중 추

적인 콜금리목표 상향조정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그러나 각종 통화지표 증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
때문에 콜금리목표를 크게 상향조정할 가능성은 적음.
- 현재 금리가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못하고 바닥권에서 장기간 머물러 있었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장기금리는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소폭 상승할 전
망
- 풍부한 시중유동성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주식 및 채권 관련 주요금융상품의 기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단기부동자금의 일부가 연초대비 높은 자산수익률
시현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음.
- 이는 증시침체 장기화로 은행권에 과도하게 유입된 자금들 중 일부가 예금상품
기대수익률에 대한 불만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수급차원에서 4/4분기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규모가 3/4분기에 비해 큰 점은 금리
승요인이나 기업들의 연말 자금수요가 예상되는 4/4분기중에도 전반적인 자금수
급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금리상승 정도는 제한적일 전망

<표 22> 2002년 하반기 월별 회사채 만기도래규모

						단위 : 억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2,000	11,000	7,400	5,400	15,700	29,500	

주 : 상장기업 기준임

전망과 정책과제

- 장기금리는 그동안 미국 경기의 불투명성과 채권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려졌던 국경외 경제의 펀더멘털의 영향력이 점차 대두되면서 2003년에는 점진적으로 상승기조 이어갈 전망이다.
- 그동안 예금상품의 낮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은행권과 투신권에 머물러 있던 금들이 자본시장의 직·간접 투자상품으로 환류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금리상승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실물시장과 괴리를 좁히는 방향으로 장기금리가 움직일 것으로 보이므로 장기금리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보임.

<표 23> 장기금리 전망

단위 :

	2001년	2002년					2003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상반	하반	연간
회사채	7.0	7.4	7.0	6.5	7.1	7.0	7.7	8.3	8.0

주 : 1) 기간 평균기준임.

2) 전망은 한경연 거시경제모형의 추정결과임.

원·달러환율 2003년도 소폭의 하락세 전망

- 경상수지 흑자규모 축소, 외국인 주식매도세 지속 등에도 불구하고, 보유외환의 용수익과 엔화 및 유로화 강세로 인해 유로화 통화표시 자산의 美달러화 환산액 증가함에 따라 8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1,165.4억 달러를 기록
- 3월 이후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율이 증가추세를 지속

<표 24> 외환보유고 추이

단위 : 억 달러(월말기준)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12월	12월	1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외환보유고	740.5	962.0	944.4	1,060.9	1,077	1,096	1,124	1,155	1,163
단기외채/외환보유액	53.0	49.8	37.8	38.8	40.7	40.6	42.4	43.9	..

자료 : 재정경제부

- 4/4분기중 미달러화는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상수지의 적 누적, 기업회계 부정 이후 투자자의 불안심리 잔존 등 달러화의 구조적 약세요인 해소되기 어려워 완만한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 그러나 엔화의 경우도 일본정부의 지속적인 시장개입 가능성과 일본경제의 구조 취약성 부각으로 엔화의 美달러화에 대한 추가적인 강세기조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 따라서 원/달러환율은 4/4분기중 엔화가 美달러화에 대한 강세폭과 약세폭이 모두 제한되면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양상이 지속될 전망이다며 수급요인에 의해 연말 갈수록 점진적 하향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 2003년중 美달러화는 미국 기업실적이 개선되고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강세 조를 보일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으나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악화라는 구조적 달러화 약세요인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워 달러화 약세기조는 일정정도 지속될 전망이다
- 원/달러 환율은 2003년도에도 기초경제여건이 반영되면서 완만한 하락세가 이어 연말에는 1,150원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제 4 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1. 최근 경기국면에 대한 인식

- 현 경기국면은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 및 이라크전쟁 가능성, 내수증가세 둔화, 유가 상승 가능성 등으로 인해 불투명한 상태
 - 국내경기는 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부문의 회복으로 활력을 찾고 있고 수출 등 완만한 증가가 경기회복세에 가세
 - 특별소비세 인하조치와 월드컵 등으로 자동차, 대형TV 등 내구 및 준내구 소비를 중심으로 소비증가세가 금년 상반기까지 유지
 - 그러나 가계대출 및 카드사용 등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설비투자의 부진이 속되고 있어 국내경기를 견인했던 내수증가세의 둔화 예상
 - 경기회복과 함께 중동정세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부동산가격의 급등, 수해로 인 농수산물가격 상승, 전세가 상승 등의 물가불안요인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향후 속적인 총수요압력은 적을 것으로 예상

- 정부의 저금리기조, 기업의 자금수요부진, 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 강화, 주식시 침체 등으로 나타난 일부 부동산시장의 과열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안정 예상
- 한편 미국경제회복의 지속여부와 내용 및 이라크전쟁 등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 향후 우리 수출과 투자의 본격적인 회복에 대해 불확실성 존재
- 현재의 경기국면은 총수요가 성장잠재능력보다 높아서 발생하는 물가상승압력이 증되고 있거나 경기과열의 상태로 보기는 아직은 어려움.
- 부동산가격 급등 등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리인상 등은 정책의 지속이나 효과시차 등을 고려할 때 그 정책효과가 현 시점에서 가시화되기 어려움.

2. 향후 경제정책 방향

가. 현 경제정책의 기조유지와 경제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차단

- 향후 거시경제정책의 방향은 경제의 안정적인 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해 현 거시경제정책 기조 유지
- 필요시 부분적인 미세조정을 통해 정책에 대한 유효성과 신뢰성 제고
- 임기말 레임덕 현상으로 인해 이익집단의 요구와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
- 경제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료의 정치적 입지나 부처이기주의로

한 정책혼선 차단

- 현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 주장
대해 의견을 수렴하되 지나친 주장은 경계
 - 외국투자자들이 정치적 영향으로 인한 정책일관성 저하나 개혁지연 가능성 여
등에 대해 주시하는 상황임을 인식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새로운 정책을 획기적으로 제안하기보
는 현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투
의 역할 요망

나. 통화신용정책 : 현 금리수준 유지

- 국내외 경제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가계대출과 내수의 증가세가 둔화될 것
로 예상
 - 각종 통화지표 증가세의 둔화와 함께 총수요증가에 의한 물가상승압력이 적은
황에서 안정적인 경제회복을 위해 현 정책금리수준 유지
- 다만 최근 물가 및 부동산가격 불안, 내수증가세 둔화, 미국경제의 회복지연이나
블 딩 가능성, 환율 및 반도체가격 변화 추이 등에 유의하여 신중적으로 운영
 - 특히, 미국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이라크전쟁 가능성과 9월 24일에 열릴 예정
FOMC 회의 결과에 주목

- 또한 부동산 등 일부 부문의 과열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 카드사 등 가계금융
급금융기관들의 건전성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
- 한편 금융시장, 특히 은행권의 소극적 기업대출을 보완할 수 있도록 회사채시장이
주식시장의 역할을 제고
 - 자금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는 자금시장의 제도적·구조적 개선조
강구

다. 재정조세정책 :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및 조세제도 전면 재검토

- 중기재정적 시각에서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성장잠재력 확충, 수해피해 복
등 용도가 분명한 재정지출은 유지하되, 불필요한 예산배정을 철저히 검토하여 재
지출의 효율성 제고
 -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금년 예산이 크게 편성된 것이 아니므로 규모자체의 조정
다는 불필요한 예산배정을 철저히 검토하되,
 - 고용창출, 성장잠재력 확충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촉진에 도움을 주는 SOC
업 등과 같이 용도가 분명한 재정지출을 유지할 필요
- 조세정책의 경우, 최근 경기회복 추세, 회계투명성 및 카드이용 증대 등에 따라 세
징수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 전망
 - 향후 경기급락현상이 발생할 경우에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유연하게 수행할 수
도록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보

- 또한 장기적인 시각에서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나 연결납세제도, 부동산세제 등 포함하여 전반적인 조세체계를 재검토할 필요

라. 환율정책 : 제한적인 환율정책

- 시장원리에 따른 환율변화를 용인하되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대해 외환보유고 등 이용한 직접적인 시장개입보다는
- 급격한 변동폭을 완화하는 수준에서 외채상환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활용하는 한적 환율정책 요망

마. 부동산대책 : 중·장기적 시각에서 대응

- 투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윤추구에 있기 때문이므로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반영하 보유과세를 상향조정하고 재산세·종합토지세 과세표준 등의 부동산세제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요망
- 다만 조세저항,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과세부담 전가, 경제전반에 미칠 부작용 등 충분히 검토하여 점진적 보유과세 개편안과 그 시행시기를 발표할 필요
- 또한 신도시 건설 등을 포함한 향후 주택수급의 문제와 함께 교육제도 개편이나 거환경 개선 등과 같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관류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동산대책의 수립 필요

바. 기업 및 금융구조개혁정책 :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하되 글로벌경제에 부합하는 제 및 제도 개선

- 현 상황은 정부주도의 기업 및 금융구조개혁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 및 금융구조개혁을 일관되고 투명하게 추진
 - 시장원리에 의한 상시기업구조조정체제의 조성을 위해, 퇴출관련 제도정비 및 인 확충 노력
 - 부도에 따른 사회·경제적 과장이 두려워 기업회생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말고 도사후관리의 체계화에 노력
- 시장자율에 따른 기업 및 금융구조개혁은 단기적인 시장충격을 줄 수 있으나,
 -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장기적으로 자생적인 성장잠재력 확충 크게 도움
- 기업의 회계 및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는 동시에, 부 비율이나 사외이사비율 등과 같은 획일적인 정책지침도 개선
 - 건전한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각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
- 글로벌경제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나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에 의한 직접적 규 에서 이해관계자나 시장에 의한 규율로의 전환
- 기업가의 창의성과 의욕을 고취하고 기업의 R&D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하여 지속적인 성장기반 도모

아. 노동정책 : 균형잡힌 노사관계의 정립

- 인기주의나 정치적 영향에 의한 노동정책보다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사관계에 있어 법치주의 확립
- 실효성이 없는 정리해고제를 개정하고 외국인투자 및 M&A 촉진을 위해 포괄 고용승계 의무화 폐지

부 록

주요경제통계

주요경제통계

경제성장률 · 소비 · 투자

연 월	경제성장률		1인당 GNI US \$	소비		투자		
	GDP	제조업		민간	정부	총고정투자	설비	건설
	전년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					
1999년	10.9	21.0	8,595	11.0	1.3	3.7	36.3	-10.3
2000년	9.3	15.9	9,770	7.9	0.1	11.4	35.3	-4.1
2001년	3.0	1.7	8,900	4.2	0.2	-1.7	-9.8	5.8
4/4	13.0	26.4	-	12.8	1.7	7.2	53.0	-9.9
2000년 1/4	13.1	22.9	-	11.9	0.5	22.8	64.1	-6.3
2/4	10.2	17.1	-	9.7	0.2	13.2	42.6	-4.8
3/4	10.0	18.5	-	6.6	-0.7	10.9	32.3	-3.0
4/4	5.0	6.9	-	3.9	0.5	2.0	9.3	-2.7
2001년 1/4	3.7	4.5	-	1.5	-0.7	-4.0	-8.4	1.5
2/4	2.9	2.2	-	4.1	-0.1	-4.8	-11.2	1.1
3/4	1.9	-1.7	-	4.8	1.0	-3.1	-15.7	8.2
4/4	3.7	2.1	-	6.6	0.3	4.9	-3.1	10.7
2002년 1/4	5.8	3.5	-	8.4	5.5	6.5	3.2	10.1
2/4	6.3	6.4	-	7.7	4.9	5.6	7.4	6.7

무역 · 국제수지

연 월	무역				국제수지		외환 보유액 ¹⁾ (기말)	대미환율 (기말)
	수출(FOB)		수입(CIF)		상품	경상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원/달러	
1999년	1,436.9	8.6	1,197.5	28.4	283.7	244.8	740.5	1,145.
2000년	1,722.7	19.9	1,604.8	34.0	168.7	122.4	962.0	1,259.
2001년	1504.4	-12.7	1,411.0	-12.1	133.9	86.2	1,028.2	1,326.
2001년 7월	113.9	-21.2	111.1	-18.8	8.1	4.4	970.6	1,301.
8월	117.7	-20.4	113.4	-15.6	6.4	-1.4	990.2	1,283.
9월	124.5	-17.7	117.1	-11.9	14.7	7.4	1,000.8	1,309.
10월	120.9	-20.7	115.1	-18.4	6.6	3.0	1,004.7	1,296.
11월	123.5	-17.6	115.3	-18.6	9.5	7.4	1,016.5	1,273.
12월	119.1	-20.4	113.0	-14.2	5.7	0.2	1,028.2	1,326.
2002년 1월	113.9	-10.0	113.3	-8.8	6.6	2.8	1,043.0	1,314.
2월	110.2	-17.4	104.6	-17.8	6.6	3.8	1,050.9	1,327.
3월	132.6	-6.1	119.3	-7.9	19.5	10.4	1,060.9	1,325.
4월	131.9	8.8	125.5	11.9	11.3	-0.1	1,076.6	1,294.
5월	141.8	6.6	126.9	9.8	14.9	10.0	1,096.3	1,226.
6월	129.3	0.0	119.2	1.7	17.7	8.2	1,124.4	1,201.
7월	136.0	19.4	129.5	16.5	9.3	0.3	1,155.0	1,188.
8월	141.6	20.3	129.0	13.8	-	-	1,165.4	1,201.

주 : 최근 데이터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가용외환보유액 기준

전망과 정책과제

물가·실업·이자율

연 월	물가 ²⁾		실업률 (계절조정)	제조업 명목임금	통화 ³⁾		회사채 수익률	주가지수 80.14-100
	생산자	소비자			M2	M3		
	전년동기대비(%)		(%)	전년동기대비(%)		연%, 평균	기간평균	
1999년	-2.1(0.9)	0.8(1.4)	6.3	14.9	27.9	11.3	8.86	806.8
2000년	2.0(1.7)	2.3(2.8)	4.1	8.6	30.2	5.6	9.25	734.2
2001년	1.9(-0.7)	4.1(3.2)	4.7	5.8	15.7	9.6	7.04	572.8
2001년 7월	2.7	4.8	3.4(3.7)	4.7	13.2	9.8	7.00	554.1
8월	2.0	4.7	3.4(3.6)	-1.6	12.8	10.3	6.51	567.7
9월	1.2	3.3	3.0(3.3)	9.9	12.8	10.7	6.32	504.0
10월	0.6	3.4	3.1(3.5)	2.2	14.0	11.8	6.31	523.3
11월	0.1	3.4	3.2(3.5)	5.5	13.4	11.4	6.79	604.9
12월	-0.7	3.2	3.4(3.3)	5.4	13.8	11.3	7.11	665.9
2002년 1월	-0.6	2.6	3.7(3.2)	-12.8	12.6	11.6	7.07	738.9
2월	-0.2	2.6	3.7(2.8)	28.6	14.7	11.9	6.89	774.4
3월	0.0	2.3	3.4(2.9)	11.2	16.2	12.9	7.05	864.7
4월	0.7	2.5	3.1(3.1)	9.9	15.7	13.7	7.20	894.0
5월	1.5	3.0	2.9(3.1)	13.0	14.5	13.7	7.07	842.2
6월	1.2	2.6	2.7(3.0)	-	13.8	13.5	6.76	784.3
7월	0.9	2.1	2.7(3.0)	-	12.3	-	6.59	753.7
8월	1.6	2.4	2.9(3.1)	-	12.1	-	6.23	713.2

주: 2) () 는 전년말월대비증가율. 3)평잔기준

산업활동

연 월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전산업	평균 가동률(%)	도소매 판매액	소비재 출 회 ⁴⁾	국내가계 수 주 ⁵⁾	설비투자 추 계	건설 수주	건설 기성	공공	민간	
	전년동기대비(%)										
1999년	24.2	76.4	13.0	21.1	30.9	43.5	0.8	1.2	6.5	-3.7	
2000년	16.8	78.5	9.8	6.0	11.7	30.1	15.1	-3.1	-5.6	-1.5	
2001년	1.8	73.2	4.6	1.9	-1.0	-5.1	14.4	5.7	0.9	9.6	
2001년 7월	-6.1	70.6	3.0	6.7	-11.5	-9.5	11.9	-8.3	-19.3	1.0	
8월	-4.3	72.6	3.7	5.5	-8.9	-19.2	-19.4	8.6	1.2	14.6	
9월	5.1	73.3	7.9	19.6	4.8	-6.0	63.7	23.4	22.0	24.8	
10월	-1.4	72.4	4.8	3.4	4.3	-4.3	30.2	6.3	3.6	8.0	
11월	5.0	73.0	6.6	-2.0	-0.6	4.4	80.4	14.9	13.6	16.0	
12월	3.3	71.8	8.1	1.4	-19.6	5.6	64.7	16.3	10.4	21.4	
2002년 1월	10.0	76.6	7.3	17.3	27.9	5.3	39.5	12.3	-10.5	30.4	
2월	-2.7	76.3	8.1	6.2	14.5	-0.6	41.9	14.3	3.7	22.7	
3월	4.4	77.5	8.3	12.5	48.4	2.4	168.6	5.2	-7.0	11.5	
4월	7.4	77.7	7.8	5.3	21.9	2.3	31.3	2.0	-11.7	10.3	
5월	7.7	76.4	7.5	6.1	-13.3	4.8	2.6	-0.6	-16.8	11.1	
6월	5.4	73.3	4.1	1.4	26.4	-7.4	-1.1	10.0	-3.6	19.4	
7월	8.9	75.2	6.6	7.9	13.3	-3.3	2.6	14.6	3.5	19.7	

주: 4)내수용 5)내수용, 선박제외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권1쇄 인쇄/2002년 9월 27일

1권1쇄 발행/2002년 9월 29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좌승희

편집인/허찬국

등록번호/제13-53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대표)3771-0001 (직통)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2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